펄펄 나는 메시…어떻게 막나

UEFA챔스리그 8강전 '홀로 4골' 맹활약

아르헨前 앞둔 월드컵팀 '메시 봉쇄' 비상

'펄펄 나는 메시, 어떻게 막아야 하나?' 말 그대로 파죽지세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태극전사와 맞대결을 펼칠 아르헨티나의 골잡이 리오넬 메시(23·바르셀로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가 아스널을 상대로 무려 4골을 몰아쳤다.

메시는 7일(한국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누캄프에서 치러진 아스널과 2009-2010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0-1로 끌려가던 전반 21분 동점골을 시작으로 전반전에 해트트릭을 완성하고 나서 후반 43분 마무리골까지 장식하며 팀의 4-1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합쳐 무려 4번째 해트트릭이다. 이 때문에 월드컵 무대에서 메시와 맞붙어야 할 태극전사들로선 갈수록 부담의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언터처블 메시'=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메시에 대해 "지능적이고 영리한 플레이를 한다. 본인이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옆 사람을 이용하는 플레이도 탁월해 수비수들이 상대하기 까다롭다"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메시의 강점은 확실한 결정력이다. 정규리그에서도 26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8골을 기록하며 7골을 터트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를 뛰어넘어 득점 1위로 올라섰다.

◇박지성-이청용 '맑음'…박주영-기성용 '흐림'=아르헨티나 골잡이들의 골 소식이 연일 터지고 있지만 태극전사들의 최근 기상도는 흐림에 가깝다.

그나마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이 꾸준히 공격포인트 소식을 보내주고 있지만 소속팀 미드필더들의 지원이 부족한 박주영(모나코)과 주전에서 제외된 기성용(셀틱)의 부진은 안타깝기만 하다.

K-리그에서는 이동국(전북)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골)와 정규리그(2골)을 합쳐 4골을 쏟아내며 분발하는 게 반갑지만 '부동의 골키퍼'로 자리 잡은 이운재(수원)는 최근 5경기에서 12골이나 내주면서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은 메시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에 대해 허정무 감독은 지난해 연말 인터뷰에서 "메시를 전담마크하려면 우리 진영도 변화를 줘야 한다. 대인마크보다 동료와 협력 플레이를 통한 수비가 최선"이라며 "다른 선수들도 뛰어나서 메시에만 치중하다가는 팀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 짜임새 있게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7일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농협 2009-2010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챔피언결정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KT&G 아이엘즈의 1차전에서 KT&G 몬타뇨(위)가 현대건설 케니의 수비벽을 앞두고 강타를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케니 맹활약…현대 '먼저 1승'

女프로배구 챔프전 KT&G 3-1 꺾어

여자 프로배구 정규리그 1위 팀인 현대건설이 KT&G(2위)를 꺾고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현대건설은 7일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NH농협 2009-2010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1차전에서 KT&G에 3-1(25-19 17-25 25-19 25-22)로 이겼다.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전적에서 6승1패로 크게 앞선 현대건설이 집중력에서 앞섰다.

현대건설은 케니(24점)와 한유미(16점), 양효진(10점)이 고른 활약을 벌이며 공격력에서 KT&G 몬타뇨(28점)을 압도했다.

두 팀은 8일 오후 5시 같은 곳에서 2차전을 치른다.

이날 경기에서 현대건설은 1세트를 거머쥐며 기선을 제압했으나 2세트에서 반격을 허용, 세트스코어 1-1의 팽팽한 승부를 보였다. 하지만 경기 감각이 완전히 살아난 현대건설은 3, 4세트를 거푸 잡아내 정규리그 1위의 위세를 뽐냈다. /연합뉴스

'강진 출신' 역도 이형근 감독

올림픽 동메달 도체육회 기증

강진 출신으로 현재 역도 국가대표를 이끌고 있는 이형근 감독이 최근 88서울올림픽 때 획득한 동메달을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서정복·이하 도체육회)에 기증했다.

지난달 말부터 국가대표팀과 전지훈련차 보성에 내려온 이 감독은 지난 5일 도체육회가 역사관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24년째 소중히 보관해 오던 동메달을 기꺼이 내놓기로 결정하고 서정복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이형근 감독은 이미 서울올림픽 당시 착용했던 유니폼, 신발, 벨트 등을 올림픽기념관에 기증했었다. 이형근 감독은 "선수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면서 "전남체육 역사관이 내실 있게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체육회는 전남체육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전남 체육의 자료를 한 곳에 전시할 역사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도내 체육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체육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서승원기자 swseo@

박한빛 개인전 우승

전남북·광주권 캐디골프대회

제1회 전남·북, 광주권 캐디골프대회가 지난 6일 보성CC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캐디골프대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함평다이너스티 등 도내 골프장 소속 캐디 14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캐디의 친절 서비스 향상과 업무에 대한 자부심 및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샷건 방식으로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린 개인전에서 박한빛 씨가 1위를 차지했다. 5인이 참가해 최저 스코어 1인을 제외한 4인의 합계로 기량을 겨룬 단체전에선 골드레이크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생활체육 가든주류팀

국제생체야구대회 우승

광주생활체육 야구대표 가든주류팀(단장 이상동)이 제1회 국제생활체육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가든주류팀은 최근 제주종합경기장 오라야구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 결승에서 일본 선발팀을 10-5로 꺾고 첫해 우승의 주역이 됐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4개국에서 8개팀 238명의 선수단과 한국연예인야구단 '恨' 40여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앞으로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생활체육대회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기자 swseo@

KT&G 15년만에 우승

전국 종별배드민턴 리그

한국 여자실업 셔틀콕에서 강호로 떠오른 KT&G가 2010 구미 새마을 전국 봄철 종별배드민턴리그에서 15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KT&G는 7일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결승에서 대회 4연패를 노리던 삼성전기를 3-1로 제압했다.

KT&G가 봄철종별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995년 대회 이후 15년만이다. 국가대표 배승희(27), 배연주(20), 정경은(20)을 확보한 KT&G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삼성전기와 대교눈높이가 양강으로 군림하던 여자 실업 셔틀콕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단식의 배승희와 배연주가 1, 2번 주자로 차례로 나서 각각 박소리와 서윤희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겼다.

이어진 복식에서 임재은-강주영이 이효정-김미영에게 졌지만 배승희-정경은이 이경원-박소리를 2-1로 누르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남자부에서는 상무가 강남구청을 3-1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셔틀콕 남자 단식 간판 박성환을 필두로 복식의 정재성-한상훈, 전준범-강명원이 승리를 따냈다. /연합뉴스

2022년 월드컵유치위

홍보 UCC 당선작 발표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위원회(위원장 한승주)가 유치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진행했던 홍보 이벤트 당선작을 확정했다.

월드컵 유치위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홍보하는 UCC(손수제작물) 공개모집에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열정적인 아침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낸 추교현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최우수상 상금은 200만원이다.

우수상 2명은 김아름(꿈은 이뤄진다)씨와 황순규(보고 싶다, 월드컵아)씨가 각각 뽑혀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또 장려상에 김성헌(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김영민(글로벌 코리아 어게인 2002)씨 등이 선정됐다. /연합뉴스